

# 【변증법 용어】 생성(生成, Werden)

무산자

“‘어떤 것에서 (바로 그; 인용자) 어떤 것이 생겨난다’ 또는 ‘무에서 무가 생겨난다’라는 명제는 사실상 생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명제에서는 시작점과 종결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대인의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여기에는 추상적-오성적 동일성의 명제(der Satz der abstrakten Verstandesidentitaet)만이 있을 뿐이다. (...) 존재와 무가 공허한 추상물이라면 생성은 최초의 구체적 사유이자 최초의 개념이다. 따라서 존재의 개념에 관해 일컫는다면 그것은 존재가 생성으로서 있을 때에 한해서이다. 왜냐하면 존재로서의 생성은 공허한 무이며, 또한 무로서의 생성은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 속에 무가 있고 무 속에는 존재가 있다.” (G. W. F. Hegel, *Saemtliche Werke*, Bd. 8, Frommann Verlag, Stuttgart, 1964, § 88.)

“양자(존재와 무(無); 인용자)의 진리는 한쪽이 다른 한쪽 속에서 직접적으로 소멸되는 운동, 즉 생성에 있거니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양자가 구별되면서도 또한 이들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해소되는 그러한 구별의 과정을 거쳐 가는 운동을 뜻한다.” (G. W. F. 헤겔, 임석진 역 (1983), 《대논리학》, 제1권, 지학사, p. 76.)

생성은 변증법의 핵심 범주 중 하나로, 존재와 무의 부단한 상호이행—존재와 무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고대 엘레아 학파는 존재는 존재이기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존재는 확실한 것이며, 비존재는 비존재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존재와 무의 통일을 부정하고 오로지 존재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대 사상가였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에 반대하여, “그렇듯 단순하고 일면적인 추상성에 대해서 생성이라고 하는 조금더 높은 차원의 통체적인 개념을 역설하면서 「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도 있을 수 없다」 혹은 「만물은 유전(流轉)한다」 즉, 「모든 것은 생성일 뿐이다」”(《대논리학》, 제1권, p. 77.)라고 하였습니다.

변증법의 핵심은 〈모든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단히 변화발전하며, 발생·소멸을 거듭한다〉에 있는데, 이것이 생성의 내용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그 내부에 자기 소멸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으며, 반대로 소멸해야말로 오히려 발생의 계기가 됩니다. 낡은 것은 소멸하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새로운 것은 다시 낡은 것으로서 소멸하고, 다른 새로운 것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양식에 따라서 생성은 이제 이중적인 규정을 지니게 되는데, 즉 한편으로는 존재에 관계하는 무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인 이 존재로 이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무로 이행하는 존재로부터 시작하는바—즉, 이것이 발생(Entstehung)과 소멸(Vergehen)을 의미”(《대논리학》, 제1권, p. 100.)합니다. 생성의 차원에서 존재와 무는 각각 지양되어 발생과 소멸로서 다루어집니다.

“생성은 존재에서 무로, 또는 무에서 존재로의 소멸이므로 결국 이것은 존재와 무가 다같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한 생성은 어디까지나 이 양자간 구별에 기초”(《대논리학》, 제1권, p. 102.)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와 무는 생성 작용의 절대적 부정성이라는 끈에서 동일한 것이 되어있으면서, 이 끈 속에서 또한 존재란 〈사멸을 계기로 지닌 어떠한 것의 발생〉을, 그리고 무란 〈발생을 계기로 지닌 어떠한 것의 사멸〉을 이르는, 서로 상이한 영역을 점한 추상적인 규정성으로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영역의 토양에서 한 개별 식물의 사멸은 곧 그 개별 식물이 살아있을 때와 달리 그것이 일방적으로 토지의 영양분을 소비함이 없이 토지에 새로운 양분을 제공하는 사태의 발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존재와 무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서 볼 때, 이 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멸은 발생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동시에 발생을 자기의 필연적 계기로 삼으며, 발생 역시 사멸에 대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한정된 영역에서 고찰하면 한 개별 식물은 전자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며, 후자에서 이 식물은 엄연히 비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토지의 영양분을 소비함이 없이 토지에 새로운 양분을 제공하는 사태〉는 전자에서 비존재하며, 후자에서는 존재합니다. 즉 이러한 한 계성의 측면에서 존재와 무는 서로 구별됩니다.

생성의 무한성에서 보면 존재와 무는 동일하지만, 생성의 무한성의 필연적 계기인 유한성의 영역에서 보면 둘은 서로 구별됩니다. 한계를 기반으로하는 유한성의 영역, 즉 〈어떠한 것에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가 없으면 존재와 무의 동일성 역시 성립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그대로 존재와 무의 동일성은 존재와 무의 상호 교차를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동일이라는 더욱 구체적인 사태 속에서 존재와 무 각각 그 양식의 자기 내적 계기에 〈어떠한 것으로서의 존재〉와 〈어떠한 것으로서의 무〉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적인 것 일반을 현존재(Dasein)라고 합니다.

현대 부르주아 철학에서 생철학의 출현 이래 ‘존재철학’과 ‘생성철학’의 ‘대립’은 아직까지도 유명합니다. 변증법은 〈일정한 한계 속에서의 고정적-규정적인 것〉과 〈부단한 생성〉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통일하였다는 점에서 ‘존재철학’과 ‘생성철학’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